

사설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본선에서 격돌할 후보자군의 윤곽도 거의 드러나,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와 민주통합당 송헌석 후보를 비롯해 강주덕·손문영·황정기 등 무소속 3명이 출마하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출신지역을 살펴보니, 우리 고성 출신 2명이 모두 여야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로부터 정식 심판을 받기에 앞서 공적기구인 정당이 사전에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성격이어서, 정당 공천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에 비해 속초-고성-양양 선거구의 중심지이며 인구도 고성에 비해 두배 이상이나 되는 속초지역에서는 정당 공천자

가 한명도 나오지 않아 속초출신 3명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있다. 지역색을 드러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성지역에 인재가 많다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그동안 속초-고성-양양선거구에서 속초 출신의 국회의원은 한명도 배출되지 않았는데 비해 최근 20여년간 고

성지역 경기 침체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명태 등 어족자원의 고갈로 수산업이 침체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리적으로 최전방에 위치해 있는 접경지역이어서 각종 개발에서 소외되는 것도 중요한 원인의 하나다.

간성~현내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10년이 되도록 완료되지 않

결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도로를 만들거나 지역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지난 20여년간 국회의원을 배출해온 우리 지역이 국회의원 한명도 배출하지 못한 인근 속초시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우리지역 출신 여야 후보들은 아무쪼록 주민들의 이런 민심을 깊이 새겨, 당선 이후 고성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는 시대까지 왔다. 이에 발맞춰 유권자인 주민들의 의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과거처럼 인정에 얽매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시대는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정책과 능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으로 승부하는 멋진 후보자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고성출신 후보자들에게 박수를

성 출신들이 국회의원을 독식해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우리 고성군이 유구한 역사와 높은 문화를 보유한 지역임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처럼 국회의원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수준이 크게 나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아

는 것이나, 진부령 도로 확포장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인근 속초시의 기준으로 더욱 필요한 다른 도로를 우선 개통하는 것 등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받는 차별로 해석할 수 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지구온난화 등 자연적인 문제여서 인간의 힘으로 해

김정균 칼럼위원의 중국 심천 여행기③ 미션힐즈 Mission hills

‘짜퉁가게’ 서 사넬 가방 판매 ...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 최대 골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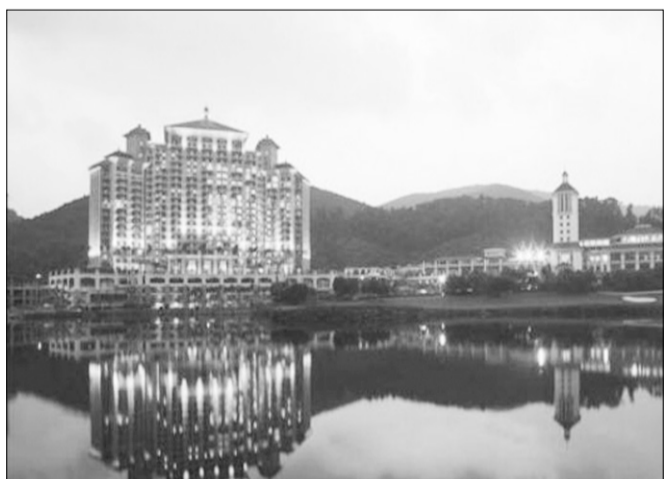
숙소에 도착하기 전에 <짜퉁 가게>를 들렀다. 들어가는 절차가 엄격하다. 밖은 검검하고 출입문은 닫혀있어 경비(군인)가 지키고 있다. 밖에서 음성으로 호출을 하니 안에서 직원이 나와서 안내를 한다. 출입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이중문으로 만들었

다. 간판은 보통 여성 속옷가게 이름인데 들어가서 보니 30여평 규모가 되는데 웬만한 것은 다 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구찌, 샤넬 등의 핸드백뿐 아니라 구두, 화장품 없는게 없다. 모두 유명제품을 모방한 짜퉁인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 샤넬 여자

제도로 국가에서 군관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중국은 지원병 제도로 각 성(省)단위로 군관을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나 사조직에서 군관을 요청하면 제시하는 보수가 적절할 때 군관을 투입한다고 한다. 연평균 온도가 22.4°C라 난방시설이 없어 약간 추운 느낌을 가지고 잠을 잤다. 5성급 호텔이라고는 하나 호텔에서 제공하는 아침식사는 한국인의 음식취향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음은 물론, 계란 후라이를 제외하고는 먹을만한 게 별로 없었다.

미션힐즈 골프장은 12개코스 216개홀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골프장이다. 아열대 식물이 페어웨이 양쪽으로 뻗뻗이 들어선 아름다운 곳이었으나 서비스는 경제대국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형편없었다. 캐디는 20대전후의 어린여자로서 잘 차려입은 한국과는 달리 몸에도 잘 맞지 않는 험렁한 체육복을 입고, 한국 말은 커녕 영어도 한마디 하지 못하였다. 1인 1캐디로서 1카트에 2명이 뒤에서 서

서 탑승하고 운전은 골퍼가 직접한다. 잭 니콜라우스, 애니카 소렌스탐, 니 팔도 등 다수의 유명한 골퍼들이 직접 설계한 골프장이라서 그런지 그린피와 골프장내 음식은 한국보다 2/3정도 더 비쌌고 캐디피와는 별도로 팁까지 요구하였다. 점심으로 주문한 김치볶음밥은 베트남산 쌀인지 찰기가 하나도 없이 당면을 쌀크기 만큼 잘라놓은 것 같았다. 다행히 한국에서 가져간 고추장과 김치가 있어 맛있게 먹을 수 있었다. 호텔에서 제공하는 커피도 입맛에 안 맞아 한국에서 가지고 간 봉지 커피가 우리 입맛에 큰 도움을 주었다.



미션힐즈 리조트.

가방 한 개가 진품이면 2백만원 정도인데, 45만원을 부르는데 25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 <짜퉁 가게>를 방문한 후 숙소인 <미션힐즈 Mission hills>라는 호텔에 도착하였다. 정문부터 공안복장의 안내원이 지키고 있다가 지나가니 경례를 한다. 나중에 알고보니 징병



김정균 칼럼위원

※오피니언란에 실린 글 가운데 '사설'을 제외한 모든 글은 본지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란 기고·독자투고 원고 받습니다 |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고성신문을 만드는 사람들

임직원 : 발행인 윤승근 편집국장 최광호 취재기자 원광연 총무과장 김창순 프리랜서 디자이너 이도연
 칼럼위원 : 김광섭 김정균 김종식 김지연 남숙희 남영선 박형수 이선국 최금란 한성수 황연옥
 시민기자 : 강성희 김일용 김태국 박선애 백옥식 장공순 최돈불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